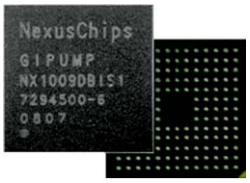
IT SoC 업계뉴스

엠텍비젼, 하반기 해외시장 공략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엠텍비젼(대표 이성민 www.mtekvision.com)이 올 하반기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엠텍비젼은 LG전자가 지난 6월 미국에 출시해 7월 한 달간 40만대를 판매하며 돌풍을 일으킨 VX9700(데어폰)에 멀티미디어프로세서(MMP)와 카메라신호처리칩(CSP)을 공급해 성과를 내고 있다. 데어폰 매출 분은 오는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회사는 예측했다. 엠텍비젼은 또 하반기 중국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중국내 3G 이동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대비해 MMP칩을 이용한 TD-SCDMA 방식 화상통신 기능 구현에 초점을 맞춰 현지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제품에도 탑재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DMB 표준의 한 방식인 CMMB 시장도 함께 공략하고 있다. 엠텍비젼은 영상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CMMB방식 디코딩IC 개발을 완료하고, 이 또한 국내 업체와 중국 현지 업체 휴대전화 20개 이상 모델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미국시장을 겨냥한 CSP 제품이 9월부터 양산될 계획이며,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의 유럽향 차기 전략모델 개발에도 제품 공급을 예정하고 있어, 올 하반기와 내년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넥서스칩스, 모바일 3D 공략



그래픽 가속칩 전문 팹리스업체인 넥서스칩스(대표 김학근 www.nexuschips.com)가 모바일 3D 시장 공략에 나선다. 넥서스칩스는 최근 개발한 3D 그래픽 처리칩 NX1007과 NX1009가 국산 내비게이션과 수출용 휴대전화에 탑재된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NX1007은 이번 달에 출시될 엑스로드의 한 3D 내비게이션에 탑재하기로 계약됐으며 곧 양산을 시작한다. 넥서스칩스는 월 2만~3만개의 칩을 납품할 예정이며, 이 내비게이션은 미국과 일본으로도 수출되고있어 공급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 NX1009는 7월 초부터 양산한 제품으로, LG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 대항마로 준비한 휴대전화 VX9700(데어폰)의 3D 처리 장치로 탑재됐다. 이 제품은 7월 한 달에만 40만대 가까이 팔렸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 두 제품은 최대 WVGA(800×480)급 해상도를 지원하며 NX1007칩은 초당 1,200만 폴리곤, NX1009는 초당 800만 폴리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회사측은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같은 휴대기기의 메인 프로세서에서 3D 정보를 직접 처리할 경우 기기 동작이 보다 안정적이며, 전력 소모량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넥서스칩스는 모바일기기에서 고사양의 3D 성능을 요구하는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차기 제품 3종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신제품은 SXGA(1,280×1,024)급 해상도를 지원하며 그래픽 처리 성능에 차등을 둬 초당 665만, 1,100만, 2,000만 폴리곤을 생성하는 제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즈네트, "2010년까지 해외 매출 늘린다"

팹리스 업체인 위즈네트(대표 이윤봉 www.wiznet.co.kr)는 최근 홍콩에 현지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미국 자회사에 추가로 투자, 오는 2010년까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해외 부문의 비중을 현재의 50%에서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즈네트는 7월 초 홍콩 사이언스파크에 20만 달러를 투자, 홍콩 지사인 위즈네트 홍콩을 설립했다. 8월부터 본사지원 인력을 홍콩 지사에 파견해 현지 채용한 연구개발 인력과 애플리케이션 R&D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원천기술인 하드웨어 기반 TCP/IP 칩을 기반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 시제품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키트(AK)를 매개로 현지 고객사에 OEM 방식으로 모듈을 공급하거나 SiP(System in Package)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전역의 기존 고객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밀착 기술지원 서비스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위즈네트 관계자는 "이번 홍콩지사 설립과 미국 자회사 확대를 통해 하드웨어형 TCP/IP 칩을 셋톱박스 및 디지털TV 등 고급형 멀티미디어 기기용으로 공급, 해외에서 거두는 매출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텔레칩스, ARM '말리' GPU 국내 첫 라이선스

반도체 설계전문기업 텔레칩스(대표 서민호 www.telechips.com)는 ARM의 '말리(Mali)-200' 그래픽 프로세서(GPU)를 활용키로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텔레칩스는 휴대폰, 오디오 · 비디오(AV)기기, 내비게이션 등 기기가 첨단 2차원(2D) 및 3차원(3D) 화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칩셋을 내놓을 계획이다. ARM의 말리-200 GPU는 1천 80픽셀의 고화질(HD) TV 해상도까지 포괄하는 오픈GL ES 2.0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했다. 여타 내장형(임베디드) GPU보다 낮은 메모리 대역폭을 기록해 전력 사용량이 낮다는 것도 특징이다.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 설계 및 개발에 나서고 있는 텔레칩스는 ARM의 GPU를 선택함으로써, 그래픽 가속 기능을 최대한 이용해 다양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텔레칩스는 말리-200 GPU를 적용한 제품을 내년 상반기 양산할 계획이다. 서민호 텔레칩스 사장은 "우리의 칩셋에 말리-200 GPU를 탑재했을 때, 시각적으로 놀라운 그래픽 효과를 구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ARM의 GPU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MDS테크놀로지, 임베디드 산업용 컴퓨터 시장 진출

MDS테크놀로지(대표 이상헌, 나기철 www.mdstec.com)가 독일 콘트론(Kontron)과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 컴퓨터 시장에 본격 나선다. MDS테크놀로지가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콘트론은 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용 보드, 모듈, 시스템과 같은 임베디드 컴퓨팅 플랫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회사다. MDS테크놀로지는 이번 계약을 통해 그 동안 축적한 임베디드 분야의 기술력과 다양한 산업의 고객DB를 기반으로 임베디드 산업용 컴퓨터 시장에 본격 진출, 전후방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콘트론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콘트론 고객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 창출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MDS테크놀로지 사장은 "최근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IT를 접목시킨 IT 융합 기술 개발에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임베디드 산업용 컴퓨터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풍부한 고객DB와 신속한 고객지원으로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이프넷, 임베디드 보안 제품군 출시

정보보안 기업 세이프넷 코리아(대표 황동순 www.safenet-inc.com)는 링크 계층에서 LAN 및 메트로 이더넷 통신을 보호하는 임베디드 보안 솔루션

인 MACsec 제품군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품은 보안툴킷인 '퀵섹/MACsec(QuickSec/MACsec)'과 IP용 보안엔진 '세이프엑셀 IP MACsec' 제품 2종이다. 세이프넷의 퀵섹/MACsec 및 세이프엑셀 IP MACsec 보안엔진은 레이어 2 LAN과 메트로 이더넷 통신을 위한 스위치, 브릿지, 라우터 등의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들에게 40Gbps의 속도를 가진 표준 준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하이브리드 보안 역량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들 제품은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네트워크 연결 제품 제조사 및 미디어 접근 제어 보안 (MACsec: Media Access Security)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만드는 반도체 제조사를 주요 고객으로, 제품 개발을 편리하게 지원하고 제품 개발 비용 절감, 제품의 시장 출시시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세이프넷의 황동순 지사장은 "점차 까다로워지는 보안 요구사항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내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에게 세이프넷의 MACsec 임베디드 보안 솔루션은 강력한 보안기능과 함께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를 선사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넷은 퀵섹/MACsec과 세이프엑셀 IP MACsec 보안엔진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네트워크 관련 업계에 완전히 통합된 OEM 보안 솔루션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매직아이, 미 · 중국 공략 가속도

팹리스 반도체 업체인 매직아이(대표 손해윤 www.mesdigital.com)가 자사 주력제품인 암코어 기반 프로세서를 앞세워 미국과 중국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직아이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해 말 발표한 암코어 기반 프로세서 '폴룩스(Pollux)'는 지난 1분기 미국시장에 40만대 납품됐다. 폴룩스 프로세서는 영국 ARM사의 코어를 이용해 만든 코어클럭 속도 533㎒의 마이크로프로세서다. 폴룩스는 지난해 말 미국 완구 제조업체인 립프로그(leapfrog)사의 교육용 완구 제품에 탑재돼 약 40만대가 팔렸으며 최근 립프로그로부터 10만대 추가 납품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매직아이는 또한 지난달 중국 심천에 현지 사무소를 열고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매직아이는 MMSP2+와 폴룩스의 뒤를 이을 차기 프로세서 제품으로 암코어11 기반 '스피카(Spica) 프로세서' 개발을 신규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매직아이 손해윤 대표는 "폴룩스 제품은 립프로그사 전제품에 확대 채택될 예정이며, 이번달부터 중국 디지털가전 시장에도 대량 공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 폴룩스 제품을 150만대 출하해 매출액은 1,600만달러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매크로영상기술, 소니 그린파트너 인증 획득

영상신호처리 전문업체인 매크로영상기술(대표 박희복 www.mitinc.co.kr)이 일본 소니의 그린파트너 인증을 획득, 일본을 비롯한 대만 · 유럽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소니의 그린파트너 인증은 칩의 재료구성 및 공정 등이 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RoHS) 등의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와 생산과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모든 요소를 면밀하게 검증한 후 발급하는 인증제도이다. 송기환 매크로영상기술 상무는 "TV신호를 PC신호로 변환해주는 디인터레이스칩인 'MDIN-180'을 소니에 공급하기 위해 그린파트너 인증 과정을 진행했다"며 "이 인증은 글로벌 회사에 대해 제품 신뢰성을 입증하고 회사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대만 · 유럽 지역 수출 증대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크로영상기술은 이번 그린파트너 인증은 향후 소니에서 개발하는 모든 제품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근 발표한 DVR · DVD플레이어 · 셋톱박스용 풀 HD 업컨버터칩인 'MDIN-200'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 상무는 "국내 대기업인 LG나 삼성 등도 소니 그린파트너 인증이 있는 기업의 경우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거래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 확대를 기대했다.

초고속 FPGA Company, Achronix, 한국시장 진출

미국 산호세에 위치한 Achronix Semiconductor (www.achronix.com)사는 9월 18일 국내 Press Release를 성황리에 마치고 국내대리점인 ㈜유니트론텍(www.unitrontech.com)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Achronix Semiconductor사는 세계 최고의 고속 FPGA를 개발 및 생산하는 회사이다. 기존 제품에서 제공되던 Re-programmable 가능한 SRAM based구조 및 다양한 IP와 IO를 지원하며, 경쟁 제품 대비 특허를 가진 2GHz 대역의 동작 속도를 제공하는 핵심 회로 기술이 그 특징이다. 주요 Target시장은 통신, 네트워킹, 고성능 컴퓨팅,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우주 항공 및 방어 시스템, 의료 영상, 그 외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다.

코아로직, 뮤직폰칩 '골드' 판매량 2,000만개 돌파

팹리스 반도체 업체인 코아로직(대표 황기수 www.corelogic.co.kr)은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MAP) 가운데 뮤직폰용 MAP인 '골드(GOLD)' 판매량이 2,000만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골드는 2007년 3월 출시 이후 8개월만인 11월 1,000만개 판매를 돌파했고, 다시 8개월만에 2,000만개 판매를 돌파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골드는 전용 MP3플레이어 수준의 고음질과 음향효과 기능을 제공하며, 대기상태에서 소모전력을 최소화하는 기능, 연속 재생 20시간, 파일 및 폴더 분류 검색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또 MPEG4를 지원하는 카메라 기능과 오디오 신호처리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포맷을 지원하며, 최대 480Mbps 전송속도의 USB 2.0 단자를 지원해 외부 멀티미디어 기기와 연결성을 극대화했다.

부리멀티미디어, 본사 이전

부리멀티미디어(대표 김태성 www.boo-ree.com)가 본사를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11-55 한스빌딩 6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02-2203-1340)

[자료제공]

[1] 전자신문 www.etnews.co.kr
[2] 디지털타임스 www.dt.co.kr
[3] 머니투데이 www.moneytoday.co.kr
[4] 아이뉴스 www.itnews24.com